光州日報

오늘 창간 70주년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광주·전남 최초의 언론 … 70년의 아침을 열었다

창간 70주년 광주일보

광주일보가 광주·전남 언론 역사상 처음으로 창간 70주년을 맞았습니다.

1952년 민족상잔의 참화를 딛고 역사의 첫 장을 기록한 광주일보는 조국분단의 설움 속에서 국토 재건과 지역 발전·문화 창달의 기수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광주일보는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치는 동안 역사를 기록하는 파수꾼으로, 진실과 정의를 밝히는 횃불로써 그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창업 당시 타블로이드판 2면으로 출발한 이후 4·19 무렵에는 폭발하는 독자의 성원에 부응해 지방신문으로는 처음으로 조·석간을 발행하기도 했으며, 지방지이면서도 전국지로 등록해 전북판·제주판에 이어 경상판까지 보급판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1971년 4월에는 서울의 동양방송과 프로그램을 제휴하는 전일방송을 개국, 지방언론으로서는 최초의 종합매스컴센터로 대약진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 5·18의 아픔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언론통폐합이라는 국보위의 결정에 따라 전일방송을 KBS에 흡수시켜야 했으며, 오늘의 광주일보로 다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광주일보의 70년 역사는 호남 근현대사의 거울이었습니다. 시·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광주일보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의 곁에서 사실보도라는 저널리즘 본연의 가치를 지키며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光州日報

광주일보 창간 70주년

☞ 광주일보 70주년 엠블럼

화살표가 원 주위를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시각적 표현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한결같이 독자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